

웅진, 상주공장 염산 누출 감식...

국과수, 밸브 균열 원인 찾기에 주력 ... 안전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월14일 염산(Hydrochloric Acid) 누출사고가 발생한 웅진폴리실리콘 경북 상주공장에서 본격 감식에 들어갔다.

4명으로 이루어진 감식팀은 오전 10시께 사고현장에 도착해 염산이 누출된 탱크를 점검하고 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사고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원인으로 보이는 밸브 균열이 동파에 의한 것인지, 탱크 내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감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도 현장의 안전조치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공장 책임자, 사고 당일 근무자 등을 불러 유독물질 관리 실태, 공장의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발생 3일째를 맞아 웅진폴리실리콘 공장 현장은 소석회 살포 등으로 안전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4>